



300-3-099. 신문조서(權五高 외 11명 치안유지법 위반) 12

■ 姜達永 외 47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내용 수록(문서 300-3-098 계속)

- 1926년 6월 경찰에서 검사국으로 사건송치가 되었고, 7월 2일부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사가 시작되었다.
- 權五高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는 7월 2일에 실시되었으며, 洪惠裕 · 金恒俊 · 李鳳洙 · 廉昌烈 · 朴珉英 · 李智鐸 · 金璟載 · 朴來源 · 楊在植 · 閔昌植 · 李用宰 · 白明天 · 朴儀陽 · 姜延天 · 李壽元의 피의자 신문조사는 1926년 7월 2일에 실시되었다. 그 후 각자의 구류장이 발부되었다.
- 權五高 · 李壽元 · 朴儀陽 · 孫在基 등의 2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7월 5일에 있었으며, 金恒俊 · 姜延天 · 洪惠裕 · 朴來源 · 閔昌植 · 楊在植 · 李用宰 · 白明天 등의 2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7월 6일에 있었고, 李鳳洙의 2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7월 7일에 있었다. 이 책 끝 부분에 白明天 · 姜延天 · 楊在植 · 孫在基 등의 指紋이 수록되어 있다.
- 위 사람들의 활동상황(범죄사실)은 문서 300-3-095와 300-3-096에 기록되어 있고, 판사의 피고인 신문조사는 문서 300-3-098에 기록이 있으며, 본서에는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사 기록이 있다.